

## 사회주의기업체들이 기업관리를 혁신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윤 영 순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을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기업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성과적수행은 사회주의기업체들에서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는것은 우선 방대한 목표를 제기하고있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자체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은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이 방대한고 높은 목표는 기업체들이 기업관리를 5개년전략수행에 지향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뿐아니라 낡고 뒤떨어진 사고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는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업체들에서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나가고있는 사회주의경제관리실천의 필수적요구이기도 하다.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관리실천에서는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관리방법들을 적극 활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인민경제부문마다 기업소마다 생산경영활동의 구체적조건과 환경은 서로 다르다. 기업소마다 인민경제부문별 생산기술적특성과 생산물의 특성, 생산조건과 수입조성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사정은 기업체들이 창발성을 발휘하여 기업관리를 자기 기업소의 특성과 구체적조건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설계하고 혁신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이로부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업체들에서는 기업관리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으로 철저히 지향시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이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기업체들이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기업체경영전략은 경영단위들이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

바지하며 가장 큰 실리를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과학적인 방법론과 묘술에 의거하여 경영활동의 전략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그 수행을 위한 방도를 예견한것이다. 다시말하여 경영전략은 생산경영의 기본단위인 사회주의기업체들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면서 자기 단위의 전망적인 발전을 위하여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로선과 정책, 변화되는 환경과 기업체의 실정을 과학적으로 따져 경영활동의 전략적인 목표와 그 수행방도를 예견하고 실현해나가는 기업체의 책략이다.

경영전략은 기업체들이 경영관리를 전망성있게 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체들이 경영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워야 자기 발전의 높은 목표와 뚜렷한 방향,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대책을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기업체들이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해당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을 경영전략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이다.

기업관리일꾼들은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그 관철을 위한 전략적방침들, 자기 부문, 자기 기업체에 제시된 당정책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경영전략수립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와 부문별과업들을 기업체의 경영전략에 반영하여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이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영활동의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달성을 위한 선후차와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며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는것이다.

기업체들은 전략목표를 반드시 높이 세워야 한다. 기업체들의 전략목표를 어떤 수준에서 세우는가에 따라 그 수행을 위한 근로자들의 역할이 달라진다.

기업체들이 전략목표를 높이 세워야 기업체의 모든 성원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산경영활동을 더욱 짜고들어 진행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 높이 발휘할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체들은 자체의 실정과 조건, 환경을 구체적으로 분석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동원적인 전략목표를 세워야 한다.

기업체들은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을 첫째가는 중심고리로 정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기업체들이 자력자강의 원칙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하는 관건적고리이다. 기업체들이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체제속에서도 끄덕없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국가앞에 지닌 사명과 의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다.

기업체들은 기업발전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원료와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공정을 확립하며 첨단설비를 비롯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기술수단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보장하는것을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새 제품개발과 원가저하는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심고리의 하나이다.

기업체들이 새 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고 생산물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원만히 담보할수 있다. 여러가지 질높고 새로운 제품창조를 내용으로 하는 새 제품개발은 인민들의 늘어나는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한다.

한편 생산물의 원가저하는 단위생산물당 사회순소득의 폭을 늘여 생산확대와 인민생활을 자금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기업소소득을 늘여 나라의 재정토대와 기업의 발전에 필요한 밑천을 원만히 마련할수 있다. 기업체들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 힘을 넣어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를 세계적수준에서 보장할수 있게 경영전략을 세워야 한다.

기업체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의 하나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하는것이다.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집약형의 기업체로 되게 하자면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에서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고 첨단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통합생산체제와 무인조종체제를 확립하고 룝색생산방식을 비롯한 앞선 생산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기업체를 현대화하기 위한 전략적목표를 제기하고 달성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이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경제적타산을 과학적으로 하는것이다.

과학적타산은 경영전략의 과학성과 현실성, 실리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경영전략작성에서는 여러가지 조건과 각이한 요인들의 작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

기업체들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는 방안, 로력집약형, 자원집약형으로부터 기술집약형, 지식집약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당면한 리익보다 전망적리익을 중시하며 부문 또는 기업소적인 리익보다 국가적인 리익을 선차시하는 방안들이 경영전략작성에서 취해야 할 합리적이며 실리적인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은 여러가지 요인들의 작용과 그 경제적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판단할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지난날의 경험이나 수공업적인 방법으로는 옳게 찾아낼수 없다.

경영전략작성을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과 과학적인 타산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적타산을 빈틈없이 깐지게 하여야 객관적경제법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고 실리적인 방안을 찾아내여 경영전략을 세울수 있다. 기업체들에서 경영전략을 잘 세운 다음에는 그에 따라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전략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기업체들이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혁신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기업체들이 경영권을 활용하여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는것이다.

현시기 기업관리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하는것은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지도밑에 기업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국가는 기업체들이 실제적인 경영권을 원활하게 활용하면서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진행할것을 요구한다. 물론 기업체들이 실제적인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이 갈라지는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인 동시에 경영관리의 주인이기때문에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란 있을수 없다.

기업체들은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자기에게 부여된 경영권을 활용하여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을 확대발전시켜나아가야 한다.

기업체들은 우선 경영자금을 자체실정과 조건에 맞게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예산 납부계획을 선차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에서 남은 자금을 자체결심에 따라 생산정상화와 확대재생산, 생산기술공정의 현대화와 근로자들에 대한 로동보수와 물질적우대에 능동적으로 분배리용하여야 한다.

기업체들은 또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인민경제계획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면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생산을 계획화해나아가야 한다. 기업체들은 국가지표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수행한 조건에서 생산능력상여유가 있을 때에는 주문과 계약에 따라 자체생산계획지표로 생산조직을 진행하여 경영수입을 적극 늘여나아가야 한다.

기업체들은 또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산과 과학기술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전문화와 결합화 등 여러가지 생산조직형태들과 흐름식, 계열식생산조직방법들을 자기 기업체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이며 관리기구를 합리화하고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기술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해나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체들은 지식경제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 새 제품을 적극 개발하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 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첨단돌파전의 주인으로 내세워 기업체가 새 기술의 적극적인 수요자,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새 제품개발과 품질관리를 기업의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관건적인 고리로 틀어쥐고 품질조종과 품질보증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기업체를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된 기업, 기술집약형기업으로 전환시켜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기업체들에서는 기업관리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혁신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실마리어 기업체, 기업관리